

碩士學位論文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타난  
홀든의 정신적 불안정과 그 해소

指導教授 卞 鐘 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李 東 壽

2004年 2月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타난  
홀든의 정신적 불안정과 그 해소

指導教授 卞 鐘 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0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李東壽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3年 12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타난  
홀든의 정신적 불안정과 그 해소

이 동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지도교수 변 중 민

『호밀밭의 파수꾼』은 정신적 불안정 증세를 지닌 16세의 고등학생 홀든 코울필드에 관한 소설이다. 성적부진으로 이미 세 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네 번째 학교인 펜시 고등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하게 된 홀든은 학교를 떠나 3일간의 뉴욕 여정을 거쳐 마침내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정신적 치료와 안정을 위해 요양원에 머물고 있다. 요양원에서 머물며 홀든은 지나간 자신의 삶과 문제를 회상의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홀든은 지극히도 보편적인 세상적 삶의 방식과 풍경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극히도 예민한 성격의 홀든은 물질주의, 세속주의, 속물주의에 찌든 현실세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만의 순수한 이상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본 홀든의 이상주의적 성향은 부적응의 고통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상증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물질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학교환경, 속물적 근성이 지배하는 사회 풍경

---

※ 본 논문은 2003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그리고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결핍된 가정환경 등이 홀든으로 하여금 부적응의 고통을 겪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홀든 자신의 개인적 성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상적 속물주의에 노출되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홀든의 이상주의적 꿈은 어리고 다정다감한 여동생 피비를 만나며 변하게 된다. 자신의 부적응, 정신적 불안정, 심지어 터무니없는 이상주의까지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따듯함으로 감싸주는 여동생 피비를 통해 홀든은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나아가 포용하는 그래서 적응과 순응을 미덕으로 여길 줄 아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된다. 요컨대 위험에 처한 호밀밭의 아이들을 “붙잡아 주는” 역할이 아니라 따듯한 정신적 교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만남”의 의미를 터득하게 된 것이다. 요양원을 나와서는 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학교와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도 잘 적응하게 될 홀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목 차〉

I. 서론	1
II. 정신적 소외와 불안정	4
III. 불안정의 원인과 양상	11
1. 불안정 요인	11
2. 자살충동과 도피심리	21
IV. 불안정의 해소	28
V. 결론	33
Bibliography	35
Abstract	38



## I. 서론

샐린저(J. D. Salinger)의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이 출판된 1950년대의 미국사회는 혼돈의 시대였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사람들은 전통적 가치와 도덕은 물론 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정신적 방황과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번영으로 인해 외형적 풍요와 안정을 구가하면서도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사회적 문화적으로 불신감과 부조리 의식이 높아만 갔다. 특히 냉전시대의 우파 보수주의적 분위기는 마침내 매카시즘(McCarthyism) 선풍으로 인해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좌경 급진주의의 척결<sup>1)</sup>이라는 명목아래 좌익 혐의자들이 대거 체포되었고, 지식인들의 가옥과 연구실은 도청 당했으며 누구나 말과 몸조심을 해야만 했다.

전통존중의 보수적 기운이 고조되는 가운데도 지식인과 작가의 저항은 미미하였고 그저 매카시의 횡포를 방관하고 있을 뿐이었다. 당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하여 어빙 하우(Irving Howe)는 “순응의 시대”(The Age of Conformity)라는 에세이에서 대중적 순응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였고 이후 매카시즘의 종말과 더불어 이 말은 좀더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유력한 사회학자들이 현대 미국사회를 규정하는데 사용한 대중사회라는 개념은 그 지배적 의미를 순응에 두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화 역시 순응문화라는 사고방식이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이 “순응”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 미국을 요약하기에 적절한 말이다. 이 순응의 시대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비트 세대”(Beat Generation)의 출현이다. 이들은 규격화된 시민생활에 대한

---

1) Broom Josh, *The World Since 1900* (New York: Longman, 1989), pp. 112~113.

반항을 보였으며 사회의 규격화된 일원으로서 틀에 박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다.

순은의 대중사회에 이어 1950년대의 미국 사회는 “소비자의 천국”(a consumer's paradise)으로 변하게 된다. 어쨌든 1950년대의 미국사회는 조직의 힘에 의해 개인이 억압되고 이에 따라 한 구석도 여유가 없는 사회로 변화되고 말았다.<sup>2)</sup> 이러한 생활방식과 윤리에 반기를 든 이 시대의 작가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긴장에서 파생된 소외의식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상을 도출해 내고 인간 관계의 복잡성, 개인의 정체성, 개인적 및 도덕적 선택의 문제 그리고 사회 속의 개인 등을 주제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작품을 쓰게 되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샐린저의 자서전적 소설이다. 샐린저는 1919년 1월 1일 뉴욕에서 태어났다. 이 소설의 주인공 홀든 코울필드(Holden Caulfield) 역시 뉴욕에서 태어났다. 샐린저는 15세때 펜실바니아주의 밸리 단지(Valley Forge)에 있는 육군소년학교에 입학했는데 이 학교는 후에 그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에 등장하는 펜시학교(Pency Prep)의 모델이 되었다. 육군소년학교에서 샐린저는 펜싱부원이었고 홀든 역시 이 소설에서 펜싱부원이다. 또한 육군소년학교의 한 생도는 창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하였는데 이는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제임스 케슬(James Castle)의 모델이 되었다. 샐린저는 대학예비학교에 다녔고 홀든도 그러하였다. 샐린저는 문학적인 자료의 빈곤으로 뉴욕을 떠나고 홀든은 그가 가는 곳마다 “엉터리”(Phoney)에 둘러싸여 뉴욕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sup>3)</sup> 이와 같은 자서전적 내용으

2) Daniel Hoffeman, ed., "Harvard Guide to Contemporary American Literatur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p. 5~9.

3) Charlotte. Alexander A., J. D.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New York: Monarch Press, 1965), pp. 6~8.

로 인해『호밀밭의 파수꾼』이 출판되었을 때 셸린저의 가까운 사람들은 홀튼과 셸린저의 유사점을 찾으려 했다. 특히 셸린저는 홀튼처럼 고독감, 소외감, 무력감을 경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주인공 홀튼이 겪는 오딧세이식의 3일간의 여정을 그린 소설이다. 펜실베이니아주의 대학예비학교인 팬시 학교를 퇴교 당한 16세 소년 홀튼은 자신의 3일간의 뉴욕여정을 1인칭 화법으로 서술한다. 그는 아주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이상주의자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그는 학교는 물론 사회의 위선적인 모든 상황을 혐오하고 삶의 현실을 부정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보며 사회의 일부분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홀튼은 그의 예민한 걱정 때문에 사람과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게 되며 이는 그를 정신적 불안정의 상태로 이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홀튼은 할리우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캘리포니아의 한 정신병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런 측면에서 홀튼은 비정상이라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한가지 방법은 정상적인 사람은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남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데 비해 비정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을 겪는 나머지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쓸쓸하게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간다는 점이다.

홀튼을 정신적 불안정 또는 부적응을 지닌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비평가들이 많다. 예컨대 코벳(Edward P. J. Corbett)교수는 홀튼이 “엉터리”라는 용어를 44회나 사용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홀튼은 엉터리들에 끝없이 대항하는 엉터리 그 자체라고 비평한다.<sup>4)</sup> 요컨대 홀튼의 정신적 결함의 원인을 홀튼 그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제

---

4) Edward P. J. Corbett, "Raise High the Barriers, Censors," *America*. IV(Janury 1961), 441~443.



이콥(Robert G. Jacob)교수도 홀든에게 있어서의 심오한 의문점은 곧 홀든 자신의 결함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제이콥 교수는 “홀든은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잘못되었다. 비극적으로 잘못되었다.”<sup>5)</sup>라고 지적하며 홀든의 정신적 질환의 근거를 이 소설의 첫장 중에 “홀든은 내가 건강을 해쳐 이 곳에서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sup>6)</sup> 거나 “나는 네가 본 중에서 가장 나쁜 거짓말쟁이다”(62)라는 구절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그럼왈드(H. A. Grumwald)도 홀든을 “슬프게도 다소 꼬인 신경증 환자”(a sad little screwed up neurotic)<sup>7)</sup>라고 규정한다.

이상의 비평적 견해에서 알 수 있듯이 홀든의 정신적 방황과 고립은 외부적,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기 보다 자신의 내면적 불안정 또는 부적응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홀든의 정신적 불안정의 양상과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 청소년기의 홀든이 자신의 정신적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게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부적응 청소년의 심리치료 및 생활지도에 시사점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

5) Robert G. Jacob, "J. D.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Holden Caulfield's Goddam Autobiography," *Iowa English Yearbook* (Fall 1959), 9~14.

6) J. D. Salinger, *The Catcher in the Rye*, ed. Sang-yong Park (Seoul: Shinasa, 2001), p. 43. 이하 본문의 인용은 이 Text에 따르며 인용문 말미에 페이지만 명시키로 함

7) Henry Anatole Grumwald. ed., *Salinger: A Critical and Personal Portrait* (New York: Giant Cardinal Edition, 1962), p. 8.

## II. 정신적 소외와 불안정

소외현상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소외현상을 사회의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구조적 관점, 둘째 소외를 사회나 경제 구조와는 관계가 없는 개인의 독립된 심리적 상태로 보는 심리학적 관점, 셋째 소외를 사회의 구조적 조건 및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경험으로 보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관점에 따라 소외개념이 달라진다.<sup>8)</sup>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소외가 발생한다고 보는 칼 마르크스(K. Marx)는 사유재산제도와 노동의 분화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외가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뒤르켐(Durkheim)은 사회의 분업이 고도화되면서 구성원간의 관계가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이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부분들간의 유기적 연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체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개인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는 아노미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보았다.<sup>9)</sup>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소외를 사회나 경제구조와 연관시키지 않고 독립적인 심리현상으로 개념화한다. 세갈(Segal)은 개인이 자신의 어떤 측면을 낯설게 느끼는 것으로 소외감(alienness)을 정의하였으며<sup>10)</sup>, 여기에는 자신의 과거 행동이나 현재 행동, 자신의 감정, 자신

8) 강완숙, 『지각된 부와 보의 가치 부/모 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과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0), p. 21.

9) 정문길, 『소외론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1), pp. 71~78.

10) J. M. Segal, *Agency and Alienation: A Theory of Human Presence* (Savage,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1991), p. 54.

의 신념, 자신의 삶, 자신의 전체 자아를 낯설게 느끼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통합성 및 전체성의 결여를 소외상태의 중요한 차원으로 보고 “자기와 자기의 요소들간의 통합의 부재”를 소외 현상의 특성으로 지적한다.<sup>11)</sup>

한편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소외를 특정한 사회의 구조적 조건 하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경험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소외개념은 특히 소외에 대한 경험적, 실증적 연구와 관련하여 발달해 왔는데 소외를 단일 현상보다는 다차원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학자인 시맨(M. Seeman)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경향이 소외를 낳고 그로부터 행동적 제 결과들이 발생한다는 도식을 제안하였다.<sup>12)</sup> 따라서 현대사회의 구조적 경향은 독립변수가 되고, 개인적 소외의 양상은 매개변수가 되며, 행동적 제 결과들은 종속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외현상을 무력감, 무의미, 규범상실, 문화적 유리, 자기유리, 사회적 고립의 6가지 양상으로 보고, 이러한 소외양상을 로터(Rotter)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해 기대감과 가치라는 용어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행위자의 개인적 입장에서 소외양상을 규정하면서 이러한 소외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sup>13)</sup>

홀든의 정신적 소외와 불안정은 3일간의 뉴욕 여행에서 성인세계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나타난다. 창녀 썬니(Sunny)와의 대화 단절, 동창생 칼 루스(Carl Luce)의 외면, 앤톨리니(Mr. Antolini) 선생에 대한 오해 등을 경험하며 홀든은 인간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

11) 민경환,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1993), 71~88.

12) M. Seeman, "Alienation and Engagement, in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A Campbell & P. Converse, eds. (New York: Russel Sage, 1972), pp. 19~34.

13) R. G. Sand, & S. I. Dixon, "Adolescent Crisis and Suicidal Behavior,"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3(1986), 109~122.

게 된다. 그의 소외감의 원인으로서는 사회적이거나 또는 개인의 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작용한다. 다시 말해, 그가 겪고 있는 소외의식과 갈증심리는 사회라는 외적 상황에 반발하는 그의 민감한 자의식과 이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에서 비롯된다.

홀든의 소외감은 부모, 친구, 사회에 의해 유발된다. 이 소외감은 그가 내쫓김을 당한 학교, 나이트 클럽, 호텔 그리고 그의 가족을 피해 주말을 숨어서 보낸 뉴욕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여 잘 보여지고 있다. 그의 소외감은 영화나 나이트 클럽 및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지적인 가식에 대한 거부반응에서 잘 나타난다. 심지어 타인의 이상적 징후, 즉 여드름, 섹스, 코를 후비는 늙은이에 대해 홀든은 구토를 느낀다.<sup>14)</sup>

홀든은 톰슨 언덕 위에 홀로 서서 색슨 홀과의 축구시합을 내려다 보고 있다. 경기장이 흰히 내다보이고 두 팀 선수들이 옥신각신 다투는 것을 내려다 보며 홀든은 “팬시축은 무섭게 야단법석이었다. 나를 빼놓고 전교생이 했기 때문이었다”(45)라고 말한다. 학생들과 홀든 사이에는 실제 거리만큼 내면의 거리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홀든의 소외감은 축구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를 “기차를 타고 오는 도중 그놈의 펜싱선수들이 내내 나를 따돌리고 배척하더군”(46)이라고 말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팬시 학교를 떠난 후 홀든은 뉴욕의 에드몽(Edmont) 호텔에 투숙하는 데 이 호텔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세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홀든의 소외감과 의사소통 불능은 계속된다.

“춤을 매우 잘 추시는군요. 프로 댄서같은요. 한번 프로 댄서

---

14) Ernest Jones, "Case History of All of Us," in *Critical Essays on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ed. Joel, Salzberg (Boston: G. K. Hall & Co, 1990), p. 24.

와 같이 흔적이 있었는데 당신은 그 여자보다 두배나 잘 취  
요. 마르코(Marco)와 미란다(Miranda)에 대해 들어본 적 있  
소?. ‘뭐라고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주위만 둘러보고 있었다.” (127)

나이트클럽을 나와 홀튼은 술집으로 향한다. 술집에 있는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며 행복해 한다. 그러나 홀튼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기  
둥 뒤의 구석진 자리로 안내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물론 시각  
적 교감조차 나누지 못한다(144).

뉴욕 세튼호텔(Seaton Hotel)의 위커 바(Wicker Bar)에서 홀튼은  
후우톤 학교(Houton School)시절 자신의 선배였던 칼 루스(Carl  
Luce)를 만난다. 홀튼은 자기보다 세 살이나 위이고, 모든 면에서 뛰  
어나다고 생각한 그를 불러 대화를 시도해 본다. 그들의 대화에서도  
홀튼이 얼마나 지독한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내가 입을 닫지 않으면 상대는 그  
만 일어나서 나를 혼자 내버리고 가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는 술을 한잔  
더 주문했다. 곧드레 만드레 취해 버리고 싶은 기분이었다.  
(217)

자 그럼, 잘 있어. 그는 팁을 남겨 두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 잔만 더 하고 가자. 제발, 난 무섭게 외롭다 거짓말 아냐.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벌써 늦었다고 하  
면서 가버리고 말았다. (220)

홀튼은 펜시 학교를 떠나면서 스펜서(Mr. Spencer)선생에게 작별  
인사 차 그의 집을 방문한다. 스펜서 선생이 왜 홀튼이 역사 과목에  
서 낙제점수를 받았는지 시험답안지를 들추려 하자 “정말 더러운 수

작이었지만, 나는 일어서서는 그것을 선생에게 가지고 갔다”(55)라고 홀튼은 회상한다. 그러면서 그들 두 사람, 즉 교사와 학생사이에 얼마나 정신적 괴리가 깊은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양 극단에 있었다. 그것이 문제였다”(59)라고 기술한다.

홀튼이 느끼는 소외감과 무력감은 그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샌트럴 파크(Central Park)의 오리들을 자주 떠올리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샌트럴 파크의 오리는 홀튼의 심리적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홀튼의 소외감을 나타내는 상징적 도구로 쓰인다. 홀튼은 이 소설에서 샌트럴 파크의 오리에 대해 네 번씩이나 언급한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런 허튼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머리속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거야. 나의 집은 뉴욕에 있지만 샌트럴 파크의 사우드 근처의 연못을 생각하고 있었던거야. 내가 집에 돌아갈 땐 그 연못은 얼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만일 얼어 있다면 그 오리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던거야. 누가 트럭을 몰고 와서 동물원으로 날라가 버리는 것일까 하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야. (57)

이토록 홀튼은 호수가 얼어 버릴 때, 오리는 어디로 가버리는지 궁금해 한다. 트럭이 와서 오리를 동물원에 데리고 가는지 아니면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는지 오리의 행방에 관심을 보인다. 오리에 관한 두 번째 장면은 에드몽 호텔로 가는 중 운전사와 나누는 대화에서 나타난다.

“샌트럴공원의 조그만 호수 말예요. 그런데 저 오리들이 연못이 다 얼 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상한 것을 묻는 것 같지만 혹시 알고 있어요?” 운전사는 뒤돌아보며 나를 미친 사

람인양 쳐다보더군. “무슨 뜻으로 그걸 묻나요?. 나를 놀릴 작정이요?” (114)

세 번째 오리에 관한 장면은 클럽으로 가던 중 운전자 호위쯔(Horwitz)와 나누는 대화에서 나타난다. 그는 홀든의 물음에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게 된다. 즉 그는 대화의 방향을 오리에서 겨울을 이겨내는 물고기로 옮겨 홀든에게 상식 차원의 궁금증을 일깨워 준다. 그는 겨울이 오리보다 물고기에게 더 고달프지만 그래도 물고기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곳에 그대로 있음을 강조한다. 호위쯔는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순간의 절대적인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만일 물고기라면 자연의 어머니가 댁을 보살펴 줄 것이요. 그렇지 않겠소? 겨울이 되면 물고기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테지요. 그렇지요?”(140) 라고 말한다.

네 번째 장면은 칼 루스와 대화의 단절된 후 찾은 공원에서이다. 홀든이 태어나고 자란, 그래서 손금처럼 잘 알고 있는 길이지만 센트럴 파크를 찾는데 무척 애를 먹는다. 그렇게 도착한 연못에는 오리가 보이지 않는다. 반은 얼어 있고 반은 얼지 않은 연못은 어중간한 성장의 시기에 놓인 홀든의 처지를 상징하며, 현재 홀든이 처한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여기서 오리는 홀든의 고립된 자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연습용 펜싱칼 역시 홀든이 처한 상황을 잘 말해준다. 펜싱부장으로 시합에 사용할 펜싱칼을 지하철에 놔두고 내린 것은 홀든이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홀든이 자신의 삶을 방어할 어떠한 보호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는 혼자이며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펜싱팀의 매니저였어. 우리는 그날 아침 백버어니 학교 (McBurney School)와 시합하기 위해 뉴욕으로 갔었지. 그러나 허탕이었지 뭐야. 내가 펜싱용칼과 장비 일체를 지하철에 놔두고 왔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만은 아니었어. (46)

도덕적, 정신적 타락으로 인한 사회적 무관심과 비정함, 그리고 성의 문란 등으로 질서를 잃어 가는 사회에 홀튼은 적응할 수 없고, 숭고한 이상을 실천할 의지도 잃어버린다. 또 다시 홀튼은 현실에서 내몰린다. 지독한 외로움이 그를 엄습해오고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소외감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었다. 현실 어디를 둘러봐도 죽음 속으로 빠져드는 그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성장의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 홀튼은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요소들 즉, 존재의 불확실함,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인간관계의 불완전함에 직면하면서 혼란스러워진다. 결국 부모에게서 떨어져 일찍부터 기숙사 학교를 다니다 세 번이나 퇴학당한 홀튼은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 요양원에 입원하다. 홀튼의 신체적, 정신적 불안정은 그의 정신병적 증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홀튼은 자기 스스로의 미성숙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나는 또 걸핏하면 “철부지 짓 이쥬” 하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지.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어휘가 빈약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나이에 비해 때때로 어린애처럼 굴었기 때문이다. (53)

이토록 연령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적 특성은 홀튼의 정신상태를



잘 반영해준다고 할 수 있다. 셸든(W. Sheldon)이 체형과 행동유형과의 관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홀튼은 내배엽형(endomorphy), 중배엽형(mesomorphy), 외배엽형(ectomorphy)중에서 구조가 선적이고 연약한 외배엽형(ectomorphy)에 속한다. 이 형태의 성격은 사고형으로 비사교적이고 소극적이며 숨기기를 잘한다는 것이다.<sup>15)</sup> 신체적 특성과 성향이 절대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홀튼의 신체적 태도 및 반응에는 그의 정신적 상태를 암시해주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다. 예컨대 그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흔드는 버릇이 있다. 그는 “나는 앞머리를 흔든다. 나는 내 머리를 많이 흔든다.”(53) 라고 스스로에 대해 말하듯이 스펜서 선생과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흔들곤 한다. 한편 홀튼은 때때로 심하게 말을 더듬는다. 이러한 말더듬이 현상도 같은 경우로 설명된다.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신질환적 증상일 수 있다. 즉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자기 표현이 저지 당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홀튼의 정신적 미성숙은 지나치게 사소한 개인의 특성을 보편화시키려는 편집증에서도 잘 나타난다. 프렌취(Warren Firench)는 홀튼을 “사물을 판단하는데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sup>16)</sup> 고 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홀튼은 기숙사 친구인 애클리(Ackley)를 바라보며 그를 “매우 특별한 소년”이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성격 및 행동의 불결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내 옆방에 있는 동안, 이 닭눈걸 한번도 본 일이 없었지. 마치 이끼가 낀 것 같은 무시무시한 이빨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 그자가 식당에서 짓이긴 감자에다 콩이니 뭐를 한 입 가

15) 김재은 등, 『일반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출판부, 1981), p. 226.

16) Warren Fiench, *J. D. Salinger* (Boston: G. K. Hall & Co. 1976), p. 109.

특히 넣고 있는걸 보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라니까. 게다가 여드름투성이거든, 대부분의 자식들처럼 앞이나 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여드름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성질이 또 유별나단 말야. (63)

이토록 이 작품의 주인공 홀튼은 아주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이상주의자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그는 삶의 위선적인 모든 상황을 회피하며 삶의 현실을 부정하고 또한 무의미한 것으로 보며, 사회의 일부분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홀튼은 그의 예민한 관찰력 때문에 사람과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게 되며 이는 그를 정신적 불안정 상태로 이끈다.



### Ⅲ. 불안정의 원인과 양상

#### 1. 불안정 요인

홀든이 정신적 불안정은 가정, 학교, 사회등 외부적 요인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홀든 자신의 왜곡되고 반항적인 의식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많다. 즉 외부적 불만요인을 투사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이율배반에 빠져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데 홀든의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파울러(Albert Fowler)는 홀든의 특성을 성악설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홀든의 성향적 특성을 악을 혐오하다 스스로 악이 되어버린 경우로 보고 있다. 파울러 교수는 루소(Rousseau)가 인간의 성선설을 주장하며 동시에 그와 같은 시대인 인 시드(Marquis de Sade)의 성악설을 논박하고 나선 점을 상기시키면서 인간의 심리는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오락가락하는 존재인데 선한 정신이 왕성하다 하더라도 악에 물들어 악을 범할 수도 있고, 또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재생시키는 악순환의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홀든의 경우에는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 사회를 저주하는 나쁜 소년의 경우가 되어야 한다.”라는 아이러니(Irony)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될 때 “루소의 빛나는 모습은 시드에 의해 영원히 그림자 지워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선과 악은 사회에서나 개인에게서나 같이 계속해서 투쟁한다.”<sup>17)</sup> 결국 빛나는 성선설은 무색해지고 인간은 영원히 선과 악의 틈바구니에 끼어 인간 상호간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핫산(Ihab Hassan)은 홀든의 도피를 진리 탐색이라기 보다 위선을 피하기 위한 도피로 해석하며 타락한 세계에 대한 그의 감성적 대응

17) Albert Fowler, "Alien in the Rye." *Modern Age* I (Fall 1957), 193~197.

의 결과는 모름지기 자신확대로 표출된다고 주장한다.<sup>18)</sup> 따라서 홀든의 비전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허클베리 핀(Huckleberry Finn)보다 편협 되고 편견적이라서 정신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홀든은 이율배반적이고 감상주의적 성향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학자 콜맨(J. S. Coleman)은 당시대 미국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연관시켜 홀든의 개성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콜먼에 의하면 당시 미국의 소년들 사이엔 운동과 자동차와 가족배경이 소녀들 사이에는 사회적 성공, 신체적 미, 유혹적인 예의범절, 그리고 좋은 의상 등이 가치 평가의 우선적 대상이었다. 이는 소년, 소녀 모두 학구적인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및 기성세대의 가치기준과 대비되는 점이다. 특히 소년들에게는 자동차가 중요시되고 소녀들에게는 좋은 의상이 성적보다 중요시되었다. 콜맨이 지적한 이러한 경향은 그 당시 청소년들의 공통된 성향이었다.<sup>19)</sup> 그런데 홀든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가치기준과 사고방식에 강한 혐오감을 보인다. 이는 홀든이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과 매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한편으로는 홀든이 한 세대를 대표하여 한 사회상을 투영시킬 수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물질만능주의에서 과생되는 속물적 현상에 염증을 보이는 홀든은 진실성을 추구하던 순수 창작을 포기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헐리우드 영화계의 시나리오 작가로 변신한 형 D. B에 대해서도 물질에 눈이 어두워 황금만을 추구하는 외도작가라고 비난한다.

---

18) Ihab Hassan, "J. D. Salinger, Rare. Quixotic. Gesture," *Radical Innocence* (1961), 260~289.

19) Rolf E. Muuss, *Theories of Adolescence*, 송중두 역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1), p. 189.

형은 제규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시속 이백 마일 가량 달릴 수 있는 영국제 소형자동차의 일종이야. 약 사천달러 주고 산 거지. 형은 제법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옛날 집에 있었을 땐 제법 어엿한 작가였지. 형은 『비밀 금붕어』라는 굉장한 단편집을 쓴 일이 있는데, 그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어. . . . 형 D. B는 이제 돈에 팔려서 할리우드에 나가 있어. 내가 싫어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영화야. 내 앞에선 영화얘기는 아예 입밖에도 내지 않아 줘으면 해. (43)

자동차가 1950~1960년대 미국사회의 물질문화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홀튼이 자동차에 대해 느끼는 거부반응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미국 문화에서 자동차는 한 개인의 “지위의 상징이며 힘의 연장”<sup>20)</sup>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신분 자체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홀튼은 자동차를 하나의 허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나는 싫어, 정말 싫어, 뉴욕에 사는 것도, 택시가 달리고 메디슨가의 버스가 달리고, 운전사는 늘 뒷문으로 내려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 . .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자동차에 미치고 있지 않는가. 조금이나 굶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1갤런에 몇 마일을 달릴 수 있나. 그리고 새 차를 손에 넣으면 곧 그것을 더 새것과 바꿀 생각만 하지 않는가 말이야. 난 헌차라고 좋아하지 않는다. (199~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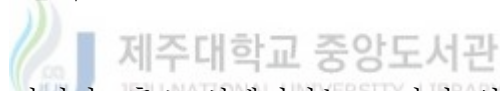
언제든지 남학교에 한번 가보는게 좋을 거야 엉터리들로 가득차 있지. 하는 일이라곤 장차 캐딜락을 살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뿐 이야. (200)

20) Erich Fromm, *TO Have or To Be?* (New York: Harper & Row, 1976), p. 73.

그러나 샬리에게 도망쳐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장면에서 홀튼은 자동차가 자신의 도피수단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중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여기서 도망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리니츠 빌리지에 내가 아는 놈이 있는데 그 자의 자동차를 한 이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단 말야. (201)

물질적 과다에 따라 사람의 수준이 구분되고 사회적 지위가 인정되는 데 대해 홀튼은 강하게 반발한다. 홀튼은 팬시 학교의 교장 서머가 상업성을 추구하는 위선자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서머교장은 엘크톤 힐스 학교의 교장 후스에 비하면 속물근성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홀튼은 후스 교장을 자신의 생애에 만난 가장 치사한 위선자이자 엉터리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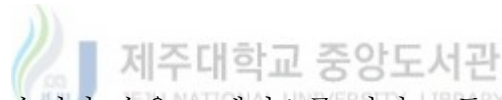


예를 들면 말이다. 후스 선생이라는 교장이 있었는데, 이 교장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최대의 엉터리였지. 서머교장보다 십배나 더 엉터리였어. 예컨대 일요일에 말이다. 차를 타고 학교에 오는 학부형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돌아다닌단 말야. 지독하게 아양을 떨면서 말이다. 그런데 좀 우습게 보이는 학부형들에겐 그렇지도 않았지. 내 반 동무의 양친과 악수를 하는 꼴이란 정말 보여주고 싶구나 말하자면 말이다. 만일 자모가 좀 똥똥하거나 못생긴 여자라면 말이다, 혹은 아버지가 말이다. 어깨가 넓은 양복이나 걸치고 너절한 검고 흰줄 있는 구두 같은 걸 신은 사람이라고 하면 말이다. 그러면 후스 교장은 손을 잠깐 흔들고는 억지 웃음을 던지고는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나 부형들에게 가서 글썽 반시간이나 지껄인달 말이야. 그런 걸 어디 참을 수가 있어야지. 사람을 미치게 한다 그 말이야. 이런 꼴을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나서 미칠 지경이라니까. 나는 그놈

의 엘크톤 힐즈 학교는 딱 질색이야. (58~59)

이토록 홀튼은 물질 앞에 자신의 양심과 진실을 버린 위선적인 속물근성에 대해 가장 강한 반발을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문들에서 나타나 듯이 홀튼 자신도 물질의 풍요함 속에 살며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물질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물질문명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택시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돈을 헤아려 보았다. 얼마 남았는지, 지금은 기억 못하겠지만 대단한 금액은 아니었다. 그러나 2주일 동안에 나는 임금의 보석금만큼 큰돈을 쓴 셈이다. 나는 낭비가였지. 쓰지 않으면 잃어 버렸지. 레스토랑이나 나이트 클럽에서 잔돈을 받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두 번에 한 번은 있었다. (172)



두 사람의 수녀가 슈우트 케이스를 가지고 들어왔다. . . . 그것은 아주 값싼 슈우트 케이스였다. 진짜 가죽이 아니고 말야. . . . 난 값싼 슈우트 케이스를 갖고 있는 걸 보기 싫어한단 말야. 이렇게 말하면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값싼 슈우트 케이스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까지 싫어진단 말야. (173)

이토록 홀튼은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물질적 궁핍을 모르고 성장했고 현재도 청소년으로서 지나치다 할 만큼 고급을 좋아하는 물질주의적 선호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상업주의나 물질적 추구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반응을 느끼는 이율배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홀튼은 인간행동의 표리가 불일치 하는 위선적인 모습에서 실존적

불안과 구토를 느낀다. 홀든은 그의 숙모가 자선활동들 통해 자기 과시만 노리고 있음을 비난한다. 그러나 우연히 만난 두 수녀에게 자선 헌금을 내미는 홀든의 모습은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

내가 헌금으로 내민 10달러 수녀들은 받았다. 그래도 상관없느냐고 내게 되풀이하며 물었다. 내게는 돈이 많다고 말했으나 내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엔 받았다. 두 사람은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하기에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 . . 그들이 떠난 뒤, 10달러 밖에 헌금 한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쉐리 헤이즈와 마티네이에서 데이트 약속을 했으니까. 포니 뒤편 사는데는 얼마의 돈을 갖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야. 그런데도 그것이 섭섭했어. 빌어먹을 돈. 그건 끝판에 가서는 늘 사람을 울적하게 만든단 말야. (175-179)

홀든은 성인세계가 보여 주는 물질추구와 그에 동반하는 위선, 비굴함, 가식을 비난하고 나아가 일체의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의례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강한 반발과 저항을 보인다. 이와 같은 예민한 결벽성으로 인해 그는 유사한 환경의 또래집단에도 융화되지 못한다. 이는 결국 홀든으로 하여금 사회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부적응을 겪게 한다.

물질주의에 대한 이율배반적 가치관, 지나칠 정도의 결벽성 그리고 타인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반항심리 이외에도 홀든의 개인적 성향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결점은 거짓말하는 습관이다. 이 습성 역시 홀든이 사회에 순응해 나가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

나 같은 지독한 거짓말쟁이는 아마 자네 평생 보지 못했을 거다. 정말 지독하지. 가령 잡지를 사러 가게에 가면서도 누



가 “어디 가는 길이야”고 묻는다면, 나는 “오페라 보러 가는 길이야” 라고 대답하기 쉽단 말이야. 정말 너무하지. 그래서 내가 스펜서 선생에게 도구니 뭐니 하는 것을 가지러 체육관에 가 봐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말이야. 도구를 체육관에 두지 않았거든. (62)

팬시 학교를 떠나 뉴욕행 열차 안에서 만난 동급생 어니(Ernie)의 어머니에게 자신을 “루돌프 슈미트 (Rudolf Schmidt)”라고 소개하면서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휴가보다 앞서서 집에 돌아간다고 거짓말을 한다(111). 그리고 호텔의 클럽에서 만난 세 여자와 창녀 씨니에게도 자신의 이름이 ”짐 스틸(Jim Steel)”이라고 둘러댄다. 그리고 셸리를 유혹하기 위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한다(193). 거짓말이나 속임수와 같은 행동은 행위장애증세중 하나이다.<sup>21)</sup>

홀든의 정신적 불안정을 초래한 원인으로 그의 가정환경을 들 수 있다. 홀든의 가족으로는 부모,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인 형 디비(D.B. Caulfield) 그리고 여동생 피비(Phoebe Caulfield)가 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언급은 간접적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그의 남동생 앨리(Allie Caulfield)가 죽은 후에 병약해진 그의 어머니는 신경이 예민하여 그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주지 못하며, 그의 아버지는 사회, 경제적인 성공에만 몰두하여 그와 대화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홀든은 사춘기 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모의 조언이나 애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부모 대신 자신의 문제 해결을 도와줄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된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잇는 마지막

2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기대의 대상자인 앤톨리니(Antolini) 선생에게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홀든은 한 밤중에 자신의 머리를 만지고 있는 앤톨리니 선생을 추악한 존재로 생각하고 당혹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든 그 곳을 빠져 나오려는 일념에 다음과 같이 핑계를 댄다.

역에 여행 가방이고 다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러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죄다 넣어 놓았으니 말입니다. 별스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돈이고 뭐고 다 넣어 둔 가방 하나 있어요. 곧 돌아오겠어요. 택시를 타고 곧 돌아오겠어요. 실은 제 것이 아니죠. 그 돈 말입니다. 제 어머니의 돈입니다. (270)

홀든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성격 형성이 아직 미숙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며 어린아이가 위기를 느끼면 어머니를 찾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홀든이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얼마나 그리워 하고 있는지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가족을 바라보는 홀든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어린애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걸작이야. 보도 위가 아니라 차도 위를 걸어가고 있었어. 보도의 바로 옆이지만은. (181)

또한 홀든이 피비의 방에서 담배 피우다가 들키지 않기 위해 숨어 있는 사이에 그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담배 냄새를 맡고는 피비에게 묻자 그녀는 “잠 잘 수가 없어서”(253)라고 이유를 대면서 거짓말을 한다. 피비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담배를 피웠다고 말하는 것은 그녀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도 홀든의 어머니는 피비의 정신세계를 걱정하거나 헤아리려조차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코울필드(Caufield) 부인은 그녀의 자녀에게 심리적, 정신적 따뜻함을 베풀려고 하지 않는다. 그녀는 만성두통으로 고생하며 자기 스스로의 건강도 추스리지 못하는 여인이다.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모의 무관심에 의해 홀든은 신경과민증에 빠져든 것이다.<sup>22)</sup>

홀든은 현실적으로 충족치 못한 애정을 백일몽을 통해 보상받으려 한다. 소설 속에서 홀든이 보여주는 가장 특이한 모습은 종종 발견되는 피학증(masochism)적인 공상이다. 창녀 씨니와의 톱 문제로 모리스(Maurice)에게 얻어맞은 후 화를 참지 못한 홀든은 복부에 피를 흘리며 층계를 내려가 모리스에게 복수하고는 제인(Jane)에게 간호를 받는 장면을 상상한다. 그리고 친구 루스에게서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고 제인에게 전화를 걸러 가면서 피를 흘리는 장면을 상상하며, 때로는 자신이 폐렴에 걸렸을 때 동생 피비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을 대할까 궁금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학증적인 공상은 자신의 죽음과 장례식에서 피비와 어머니, 그리고 조객들이 보여줄 자신의 죽음에 대한 반응을 궁금히 여기는 장면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러한 공상을 백일몽(day-dreaming)이라고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욕구를 비현실적 상상의 세계에서 충족시키려는 적응기제(Adjustment Mechanic)이다.<sup>23)</sup> 백일몽에는 승리적 영웅형(Conquering hero)과 비극적 영웅형(Suffering hero)의 두 가지형이 있다.<sup>24)</sup> 홀든의 공상은 후자인 비극적 영웅형에 속한다. 이 형은 타인으로부터 위안과 위로의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

22) Charlotte A. Alexander, *J .D.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New York: Monarch Press, 1965), p. 45.

23) 장병림, 『청년심리학』 (서울: 법문사, 1982), p. 261.

24) 김재은 등, p. 226.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위로와 위안은 곧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말하는 것이다. 백일몽 속의 대상이 모두 여자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제인과 피비는 어머니의 대리 역이며 그들로부터 홀든이 추구하는 것은 모성애이다. 캐머론(Norman Cameron)은 홀든이 보여주는 “우울신경증의 촉발 요인 중의 하나로 사랑의 상실감이나 정서적 지지의 상실감”<sup>25)</sup>을 꼽고 있다.

홀든의 정신적 불안정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학교환경이다. 홀든은 자신이 적응하지 못하는 팬시학교의 환경을 거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결국 홀든은 학교를 스스로 떠나는 행동을 취하는데 그가 거부하는 학교의 모습은 너무도 비교육적인 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한 지나친 과대 선전과 관련하여 그는 실제와 광고사이의 괴리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수많은 잡지에다 광고를 내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늘 말쑥한 청년이 말을 타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진을 내고 있어 마치 팬시학교에선 언제나 폴로를 하고 있거나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난 여태 그 학교 근처에서 말 한 마리도 못 봤어. (44)

홀든은 학교 내에 “사기꾼”이 우글거리고 학교가 비싸면 비쌀수록 사기꾼들은 더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물질만능 위주의 사고와 그에 따른 학교 교육의 부재는 엘크톤 힐스 학교(Elkton Hills School)의 교장 후스(Hoos)에게서 볼 수 있다. 홀든은 그를 가리켜 생애에서 만난 가장 치사한 영터리라고 한다.

---

25) Norman Cameron,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김기석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1), p. 279.

예를 들어 일요일마다 차를 타고 학교에 오는 학부형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돌아다닌단 말야. 지독하게 아양을 떨면서 말이다. 그런데 좀 우습게 보이는 학부형들에게 그렇지도 않았지.“ (58)

그리고 팬시의 선배인 오젠버그(Ossenburger)는 장의사를 경영하여 거금을 모은 인물로 홀튼이 기거하는 오젠버그 기념관(Ossenburger Memorial Wing)도 그의 회사에서 건립해준 것이다. 그가 때때로 캐딜락을 타고 으스스대며 모교를 방문하면 예외 없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벌이는데 그의 말은 모두 위선에 가득차 오직 물질적인 성공에만 강조를 두고 있다. 이때 교장 서머(Thumer)는 연단 위의 그의 옆에 앉아 학생들이 혹시 실수라도 저지르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홀튼은 그가 물질에 예속된 노예의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교의 퇴폐적인 모습은 위 사실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모습에서도 보여진다. 그래서 가장 순수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할 학생들조차도 기성 사회의 저속성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홀튼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홀튼이 샬리(Sally Hayes)에게 들려주는 남학교에 관한 얘기 속에 잘 나타난다.

언제든 남학교에 한번 가 보는 게 좋을 거야 하고 나는 말했다. 언젠가 시험삼아 한번 해보지 엉터리 자식들이 우글우글 하니까. 하는 일이라곤 장차 캐딜락을 살 수 있는 신분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만일 축구팀이 지는 날이면 분해 못 견디겠다는 태도를 지어야 하는 거야. 하는 일이라곤 하루종일 여자와 술과 섹스 얘기 뿐이야. 게다가 모두들 더러운 과별을 만들어 굳게 뭉친단 말야.” (200)

이러한 모습은 홀튼이 학교를 떠나기 전 작별 인사차 찾아간 스펀

서 선생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그래 인생은 경기야. 누구든지 규칙에 따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기야.”

“경기라니. 제기랄 것, 대단한 경기군. 만일 돈 많고 의젓하게 뽐낼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야 인생은 경기일거야. - 그건 나도 인정하겠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다면 그댄 인생에 무슨 경기가 있단 말이야.” (52)

여기서 홀들은 “규칙”에 따른 삶 즉,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체계나 도덕규범을 거부한다. 그래서 홀들은 기존의 가치규범인 “규칙”에 따르는 것이 삶이라고 단정하는 교장 서 머나 스펜서 선생의 삶의 태도를 용납 할 수 없다.

홀들의 불만은 학교의 운영방식이나 선생님들에게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나타난다. 예컨대 옆방의 애클리는 홀든의 방에 들어와 아무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며 홀든의 개인 물건들을 뒤적거리면서 그의 독서를 방해한다. 애클리는 방해하지 말라는 홀든의 부탁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결국 홀든은 책읽는 것을 그만두고 만다. 애클리는 이미 꾸러 놓은 홀든의 짐 속에서 가위를 꺼내 달라고 떼를 쓴다. 홀든이 가위를 찾기 위해 짐을 꺼내려다 테니스 라켓이 홀든의 머리에 떨어지자 애클리는 즐거운 듯이 과장된 웃음을 크게 웃는다. 그 가위로 애클리는 마루바닥에 그의 더러운 손톱을 깎아 놓는다. 거둬 그리지 말라고 해도 그는 개의치 않는다. 애클리에게 타인이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뿐이다. 그는 퇴학당한 홀든의 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애클리는 자기의 이해와 상관이 없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홀든과 같은 방을 쓰는 스트래드레이터(Stardlater)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애클리와의 달리 그는 잘 생기고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다. 스트래드레이터는 홀튼이 학교를 떠나는 날 저녁, 그와 데이트를 할 여자가 홀튼의 옛 친구라고 말한다. 홀튼이 그 이름을 묻자 그는 그녀 이름 제인(Jane)을 진(Jean)이라고 한다. 그는 제인이 어떤 사람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여자로서 “성적인 것만이 그의 관심거리이다”(80). 이러한 스트래드레이터의 이기적인 태도는 결국 홀튼과 싸우게 되는 원인이 된다. 홀튼의 분노는 한 인간의 순진무구함이 자기중심적인 자아에 의해 파괴되었음에 대한 분노이다. 스트래드레이터의 경우에 타인은 자기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학교를 떠나 뉴욕을 방황하고 있던 홀튼은 그의 옛 학교 선배였던 루스를 불러내어 만난다. 루스는 지적인 학생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정신분석가로 한때 루스는 홀튼에게 정신분석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한 적이 있었다. 홀튼은 루스에게 그 사실을 회상시키며 도움을 청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거절한다. 그는 홀튼에게 그가 정신분석을 받든지 말든지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220)라고 말한다. 루스는 절망에 빠진 홀튼에 대해 아무런 동정심도 공감도 가지고 있지 않다. 루스도 결국 자기중심적 자아의 소유자로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다.

스펜서 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는 홀튼에게 정신적 조언자의 역할을 못한다. 스펜서 선생은 퇴학을 당하게 될 홀튼의 입장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생각은 없고 홀튼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지적하고 자신의 얘기에 주의해 주기만을 바란다. 스펜서선생 역시 홀튼과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그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지만 수업시간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수업에 대해 참견을 하며 너절한 농담을 하는 교장선생을 보면서 마냥 웃기만 할 뿐이다. 홀튼에게 있어 스펜서 선생은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 군상중의 하나일 뿐이다.

## 2. 자살 충동과 도피심리

이 작품의 주인공 홀튼은 세상은 허위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세계와 자신에 대해 절망하며 현실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러한 생각이 자살 충동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나는 실은 자살이라고 하고픈 심정이었어. 창 밖으로 뛰어 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어. 만약 내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가 와서 내 몸을 감싸줄 것이었다면, 아마 참말 그랬을지도 모른다. (169)

홀튼의 자살충동은 동생 앨리의 죽음에 대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강박관념에 의해 보다 강해지고 이로 인하여 우울해지는 홀튼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살 행동은 약 15세 경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24세에 절정을 이루고 그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자살 시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청소년기이다.<sup>26)</sup>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서 자살 혹은 자살 충동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기의 심리적·사회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리적 특성으로 청소년기는 기분의 변화가 심하며, 우울 반응이 많은 전환기로서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성숙되지 못했으므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우울 반응이 많은 시기이며, 우울증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자살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도 우울증

---

26) Bureau of the Census, *Vital Statistics for the United States*, 114th Ed. (Washington DC: U. 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1994).



이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 충동이나 행위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성성향 즉 낮은 자기 통제, 저하된 자아존중감등은 건강의 위협과 정서적 장애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sup>27)</sup> 알코올, 물질남용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을 기도하는 결과를 유발한다.<sup>28)</sup> 자아존중감이 낮은 홀든은 포주 모리스의 부당한 요구에도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복수하는 모습을 상상할 뿐이다.

이윽고 모리스의 주먹이 작렬했다. 나는 몸을 피하려고도 때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배에 얻어맞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 . . 털투성이의 그놈의 배에 여섯 발을 쏘아 부친다. 지문을 닦고 권총은 엘리베이터에 내던진다. 그런 다음에 내 방으로 기다시피 돌아가 제인에게 전화를 걸어오게 하고는 붕대를 감게 한다. 피를 흘리는 동안 내게 담배를 물려주는 장면을 그려본다. (167~168)

외로움은 투정형태의 관계부족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에 친밀한 애착 관계 또는 친구들과의 우정, 사회적 연계부족으로 인해 생긴다. 청소년기의 경우 친밀함을 함께 할 사람이 없을 때 소외되고 외롭다고 느끼게 된다.<sup>29)</sup> 홀든은 “한 잔만 더 하자. 난 무지무지 외롭단 말야. 거짓말이 아냐.”(220~221)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외로움을 인정한다.

---

27) W. H. Buyss, "Behavior problems and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0 (1997), 645-659.

28) D. Shaffer. "The epistemology of teen suicide: An examination of risk factor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9(1988), 36-41.

29) E. M. Vernberg,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experience with peers during early adolescence: Reciprocal, incidental, or unidirecti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1990), 187-198.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은 불안, 공황, 섭식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 신체화 장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sup>30)</sup> 홀든 또한 건강 상 문제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소식가다.

난 굉장히 조금 먹지. 그래서 이처럼 말라빠진 거야. 정말은 체중을 늘이기 위해 전분질이고 뭐고 잔뜩 들어가 있는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지켜본 일이 없어. (173)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환경적 특성중 가장 많이 논의되는 환경 변인이 가정과 학교이다. 10대들의 자살 시도와 관련하여 레스터(leaster)는 자살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부모 갈등이라고 지적하였다.<sup>31)</sup> 다시 말해 가족내 의사 소통 부족, 부모와의 갈등을 포함하는 가족 문제가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샌드(Sand)와 디kson(Dixon)은 위와 같은 문제의 가족 환경을 지닌 청소년들은 가족 문제로 인해 갈등을 내재화시키고, 죄의식을 느끼며, 거부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믿게 된다고 설명한다.<sup>32)</sup> 그 결과 청소년들은 이러한 정서적 고통에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가정은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다음으로 청소년기의 자살충동을 유발하는 변인으로 학교를 들 수 있다. 학교는 또래 집단을 사귀고 자신의 학문적, 사회적 능력과 한계를 경험하는 장소이다. 만일 이 시기에 또래 집단이나 선생님과의

30) R. Haring, "Depressive disorder in adolescence: Archives of Disease," *Childhood*, 72/3(1995), 193-195.

31) D. Leaster, "A subculture theory of teenage suicide," *Adolescence* 22(1987), 317~320.

32) Sand & Dixon, pp. 109~122.

문제를 지니게 되면 자존심이 저하되고 비행 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자살 행동으로 연결된다. 이토록 친구 및 기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들이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와 결합되어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살 충동과 그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살충동과 자살행동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진창오는 자살의 심리적 원인에 대해 다음 여섯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sup>33)</sup>

첫째, 고통이나 좌절 또는 자존심 손상으로부터 야기되는 도피적 심리상태를 들 수 있다. 이 소설에서 홀든은 실제 다음과 같이 도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다음에 서부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이야. . . . 며칠 안으로 서부 어느 곳에 닿으리라. 거기서 매우 아름답고, 햇빛은 따뜻하고, 나를 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거기서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었다. (276~277)

둘째, 애정 결핍 상태에서 야기되는 공격성 또는 무관심한 주위 사람들에게 주의를 끌고 싶어하는 호소를 들 수 있다. 홀든은 샬리와 대화중 다음과 같이 공격적이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노출시키고 있다.

샬리는 어디를 데리고 가건 반드시 누구를 안단 말야. 혹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만 그렇게 말하니 마침내 이쪽은 지루하게 되어 이렇게 말해주었지. “그처럼 알고 있다면 왜 그 놈에게 가서 성대한 키스를 못해 주는 거야. 그놈도 좋다

---

33) 진창오, 『인지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6), pp. 13~14.

할텐데” 하고 말아야. (195)

셋째, 고독과 소외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구를 들 수 있다. 홀튼은 의사소통의 수단인 전화의 이미지를 통해 소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역에서 누군가와 전화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다. 그러나 그 시간에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는다. 3일간의 여행 중에 누군가에겐 전화는 걸어보지만 실제 통화는 그리 쉽지 않다. 열 다섯 번의 전화 연락에서 네 번만이 통화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좋지 않은 결과만을 낳는다.

펜실베니아 역에 내려서 제일 처음 한 일은 공중전화실에 들어간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 . .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고 그만둔 거야. (113)

넷째, 더 나은 삶을 회구하는 심리적 욕구를 들 수 있다. 홀튼은 호밀밭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의 소외와 고립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저 넓은 호밀밭에서 장난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야 수천명의 꼬마들, 그 주위에는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것 말야. . . .난 그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어. (248)

다섯째, 타인에 대한 충동적 적대감을 들 수 있다. 홀튼은 앤톨리니 선생의 행동에 대해 과도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며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선생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의자

침대 바로 옆 바닥에 앉아서 내 머리를 만지고 있는지, 어루 만지고 있는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난 일천 피트나 뛰어 올랐지. (269)

여섯째, 죽은 존재와의 상상적 재결합을 원하는 심리적 욕구에서 자살이 유발될 수 있다. 홀든은 죽은 자신의 동생에 대해 끊임없이 정서적 공감을 나누고 있다.

길모퉁이에 이를 때마다 동생 엘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엘리, 나를 사라지게 하지마. 엘리 제발” 하고 그렇게 말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꺼지지 않고 거기 저쪽에 이르게 되면 나는 엘리에게 감사했던 것이다. (276)

이토록 자살에 대한 홀든의 환상은 소설의 전반에 걸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에게 있어 엘리의 죽음은 인간의 유한성을 절감케 하는 개인적인 인상을 남기게 되며, 예상치 못한 죽음과 이로 인해 단절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홀든은 실제로 열 여섯 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엘리의 죽음이 있던 열 세 살에서 정지되어 있다.

동생 엘리의 죽음에 대해 신경증적 징후를 보이는 홀든은 자신을 제임스 캐슬(James Castle)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세계와 그러한 소망에 위협을 가하는 위선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홀든은 좋아하는 것을 말해 보라는 피비의 질문에 대해 생각나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바로 제임스 캐슬이라고 말한다. 캐슬은 손목이 연필 굵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몸집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의 굴욕적이고 위협적인 헐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아이였다. 캐슬은 필 스테빌(Pill Stabil)이라는 아이를

“우쭐대는 아이”(conceited boy, 245)라고 말한 것을 취소하지 않아, 그와 그의 일행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하였다. 사실 홀튼은 캐슬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단지 출석부에 그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 앞에 적혀있었다는 것이 그에 대해 아는 전부였다.

홀튼은 자신의 이상이 현실에서 좌절될 때마다 죽음을 상상한다. 뚜쟁이 모리스에게 구타당한 후에는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을 떠올리고, 성인생활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 같았던 칼 루스에게서 비참하게 내버려졌을 때는 배에 탄알이 박힌 듯한 시늉을 한다. 센트럴 파크에서 오리를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하고 백혈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시달린다. 이토록 홀튼은 순수성의 추구에 실패할 때마다 죽음의 세계를 상상하곤 한다. 제인의 순결성이 파괴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속수무책인 자신의 모습을 본 후 그는 죽음을 생각한다. 호텔의 창녀 사건 후 무력감을 실감하고 그는 자살을 생각한다. 이토록 작품 도처에 나타나는 죽음에의 소망은 좌절된 욕구가 내적으로 향해서 자학증세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홀튼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순수한 의지를 억압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홀튼은 혼탁한 문명사회의 현실에서 구할 수 없는 이상세계를 서부로의 도피생활에서 찾으려 한다. 문명의 타락함이 없는 숲 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여 아기와 함께 사는 이상세계를 꿈꾼다. 홀튼이 바라는 미국인의 이상향을 상징하는 서부로의 도피생활은 현실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현실과의 단절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지만, 자신과 사회의 피할 수 없는 불협화음을 목격하게 된 그는 슬픈 거짓사회에서 보다는 상상 속의 멋진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서부생활을 그리워한다.

거기는 매우 아름답고 햇빛은 따뜻하고 나를 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거기서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었다. 어는 개솔린 스탠드에서-남의 차에 개솔린을 넣어 주고 오일을 칠 하는 그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의 종류 같은 건 개의치 않았다. 다만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면 그만이었다. . . . 그리고 오두막은 숲 가까이가 좋다. 숲 속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두막에 늘 햇빛이 비치도록 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먹은 것은 전부 혼자서 요리할 생각이었고 그 후 결혼이라도 하고 싶으면 꼭 같이 귀먹은 병어리인 귀여운 여자를 만나 둘이서 결혼 할 것이다. 여자는 내 오두막에 와서 같이 살게 된다. 그리고 내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녀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쪽지에 그것을 써야 한다. 만일 어린애를 낳으면 어린애는 여기에 숨겨 둔다. 그리고 책을 많이 사주고는 우리들의 힘으로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276~277)

홀튼에게 있어 서부는 자신의 이상을 마음껏 실현시킬 수 있는 희망이 가득한 곳이다. 서부는 일반적으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원시적인 자연이며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의 상징이기도 하다. 후에 홀튼이 요양을 하게 되는 곳이 형 디비(D.B)가 머물고 있는 헐리우드와 그리 멀지 않은 서부에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곳은 홀튼에게 있어 재생의 장소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홀튼이 자아실현의 마지막 수단으로 꿈꾸는 것은 미국인의 이상향을 상징하는 서부로의 도피이다.

## IV. 불안정의 해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황을 하던 홀든은 집으로 향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피비의 방으로 들어간다, 피비는 홀든의 열살난 여동생이다. 비록 그녀는 홀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홀든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그를 이해한다. 피비는 지적이고, 깔끔하며, 훌륭한 댄서이다. 그리고 그녀의 순수성은 홀든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중의 하나이다. 때때로 그녀는 대단한 성숙미를 보여주며 홀든의 미성숙한 태도를 혼내준다. 홀든이 사회로 복귀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여동생 피비에 의해 이루어진다. 박물관에서 나와 동생을 만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 함께 서부로 가겠다는 동생의 말에서 처음으로 사랑과 포용력, 희생, 비이기성을 실감한다. 결국 홀든은 서부 행을 단념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랑의 의무를 깨닫는다.

피비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내 옷이지”하고 말했다. “나는 오빠하고 같이 갈 테야 괜찮지?” “뭐야?”나는 말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거의 까무러칠 뻔했다. 맹세코 그랬다. 좀 어지러웠다. 나는 또 다시 기절하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찰리에게 들키지 않도록 뒤 엘리베이터로 내려왔어. 무겁지는 않아. 안에 든 것은 드레스 두벌과 머커신과 내의와 양말 그리고 그 밖의 몇 가지 뿐이야. 들어봐 무겁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 봐 같이 갈 수 있지? 홀든? 상관없지?” “못써, 닥쳐!”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즉, 피비에게 입닥치라고 말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 같이 느꼈다. . . . “난 아무데도 가지 않겠어. 마음이 변했어. 그러니 울지 말고 가만히 있어”하고 나는 말했다. (286)



피비는 홀튼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홀튼의 열살 밖에 되지 않은 여동생으로 엘리와 함께 홀튼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만 피비는 그렇지 않다. 그 아이는 귀엽고 영리하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뜻을 정확하게 알아차린다.

피비는 홀튼이 변화무쌍한 사회에서 수용과 순응의 과정을 경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홀튼은 피비에게 줄 음반을 하나 사게 된다. 이 레코드는 앞니 두 개가 빠져 창피하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어린 소녀를 노래한 “리틀 셜리 빈(Little Shirley Beans)”이라는 음반으로 오래 전에 에스텔 플레처(Estelle Fletcher)라는 흑인 여가수가 불렀는데 그녀는 모든 것을 잘 알고 노래를 불렀다. 그는 구하기 힘든 음반을 쉽게 살 수 있었기에 커다란 행복감에 빠져든다. 그러나 홀튼은 오리 떼를 찾으러 갔던 센트럴 파크에서 피비에게 건네 주기도 전에 실수로 음반을 떨어뜨리게 된다.

홀튼이 정신적인 노이로제를 가져오는 현실과 이상간의 긴장과 대립의 양상 속에서 외로워하고 우울해하며,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음반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상사회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나타내 보인다. 그는 산산조각이 나 버려 아무 쓸모 없이 되어 버린 음반이지만 그 조각들을 주워 호주머니에 넣어 소중히 간직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비는 홀튼의 마음처럼 산산이 부서진 음반의 조각들을 건네 받고는 그것을 책상서랍에 잘 보관한다. 이 장면은 사회의 위선적인 모습들에 우울해져 있는 홀튼의 정신상태를 사랑으로 감싸안아 주는 피비의 따뜻한 인간애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홀튼의 심경변화는 피비의 교정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홀튼은 혼잡한 도시의 거리를 위험스럽게 걸어가면서 “호밀 밭을 걸어오

는 사람을 붙잡는다면”(181)이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여섯 살 가량 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차들이 무섭게 달리고 있는 차도를 걸어가며 천진스럽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어린아이에 대한 인상적인 경험은 홀든에게 호밀밭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을 낭떠러지로부터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는 그 노래 가사의 일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다. 홀든은 자신의 소망을 말하던 중에 피비로부터 잘못 알고 있었던 노래 제목을 교정 받게 된다.

“너 ‘If a body catch a body coming through the rye ?’ 라는 노래 알지.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 “그 것은 ‘If a body meet a body coming through the rye !’ 이지.” 피비가 말했다. “그건 로버트 번즈가 쓴 시란 말야.” “나도 그것이 로버트 번즈가 쓴 시란걸 알아.” 그러나 그녀가 옳았다. 그것은 “If a body meet a body coming through the rye.”였다. 그러나 그때 난 그것을 몰랐다. (248)

홀든은 지난 크리스마스 무렵부터 요양원에 들어오기 직전까지의 미치광이 같은 이야기를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요양원에서 회상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순서대로 정연하게 펼쳐지는 서사적 구조를 통해서 볼 때, 홀든은 지난 크리스마스 때와는 달리 요양원에 머물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에서 그의 서술은 연달아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엄격하게 조절되어 있으며 규칙과 목적에 맞게 전개되고 있다.<sup>34)</sup>

---

34) Luther S. Luedrku, "J. D. Salinger and Robert Burns: *The Catcher in the Rye*," *MFS* 126(1970),. 199.

“호밀 밭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붙잡는다면”을 (If a body catch a body coming through the rye)을 “호밀 밭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만난다면”(If a body meet a body coming through the rye)으로 바로 알게 된 사실은 홀든의 변화와 관련하여 상징하는 바가 많다. 즉, “사람을 만난다”를 “사람을 붙잡는다”로 잘못 알고 있다가 이를 바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래 로버트 번즈 (Robert Burns)의 “호밀밭으로 걸어오면서”(Coming Through the Rye)라는 제목의 이 시는 구원이나 억눌린 순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호밀 밭에서의 유혹과 성적인 희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마도 그의 시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젊은 남녀간의 성적인 접촉을 의미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홀든은 무의식중에 “만난다”는 말을 “붙잡는다”로 오인한 것은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척박한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들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지나친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는 결국 아이들을 지켜주는 호밀밭의 과수꾼이 될 수 없으며, 황금 링을 잡으려는 아이들을 위협으로부터 구해줄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 요컨대 “붙잡는다”(catch)는 단어는 억압하거나 만류하는 의미를 지닌 데 비해 “만난다”(meet)는 단어는 수용과 순응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홀든의 “붙잡는다”를 “만난다”의 의미로 교정하여 이해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부정적으로만 생각되어온 외부적인 상황을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자세로서 변화를 암시한다고 하겠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제나 변함 없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서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 자리에서 돌고 있는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피비의 모습을 보면서 홀든은 피비가 떨어지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그녀가 천장에 달려 있는 황금 링(gold ring)을 잡으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때 홀든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

로부터 배우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홀튼은 회전목마 위에서 황금 링을 잡으려는 피비와 다른 아이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 할 수도 없고 보호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는 행복감에 젖어든다.

어린이들은 모두 황금의 링을 잡아 공짜로 한번 더 타려고 하고 있었다. 피비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애가 목마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으나 아무말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다. 어린이들이란 황금의 링을 잡으려고 할 때에는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292)

이는 홀튼이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성장하며, 위기와 심지어는 타락 까지도 감수해야 하며, 또 인생에 있어서 항상 직면하게 되는 위험들로부터 보호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피비의 모습을 보며 느끼는 행복감은 자신이 처한 삶의 조건을 수용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나는 피비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행복감을 느꼈다. 땀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큰소리를 마구 지르고 싶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아무튼 피비가 파란 코트를 입고 뺑그르 돌고 있는 자태가 멋지게 보였다. (292)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피비는 홀튼이 깨어진 이상과 상실된 가치 기준, 그리고 산산 조각나버린 인간성을 감싸안음으로써 그가 앞으로 겪어 나가야 할 험난한 사회환경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홀튼이 팬시 고등학교를 그만 둔 이후로 겪었던 “미치광이 같은 이야기”(madman stuff)는 파란 외투를 입고 빙빙 돌고 있는 피비와 함께 했던 비 오는 공원에서 끝날지라도, 소설은 아직 결론을 맺지 않는다. 홀튼은 지금 헐리우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요양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이면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는 자신이 요양하고 있는 병원의 정신분석 전문의가 9월부터 학교에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하겠느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그건 참 어리석은 질문이야. 실제로 하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난,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러니 그런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질문이야. (293)

정신분석 전문의의 질문은 한치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홀튼에게 무리한 요구였다. 홀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즉 성인으로서 성숙의 과정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이는 언제든지 재고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와의 잠정적인 합의일 뿐이다. 그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형 디비에게 털어놓았던 지난 크리스마스 무렵에 일어났던 미치광이 같은 이야기 속에서 상상했던 절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호밀밭의 파수꾼”으로서 또는 서부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귀먹은 병어리”로서의 인생은 아니다. 홀튼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의 여정이라는 경험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 특히 스트라들레이터와 애클리 그리고 모리스 마저도 그렇다”(293) 고 말함으로써 아마도 자신과 자신의 주변, 즉 타인, 사회 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 V. 결 론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은 종래의 비평가들이 평해온 대로 현대 젊은이의 대변자나 아메리카 아담의 이미지를 지닌 순수이야기의 주인공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특수한 경험과 문제 의식을 갖고 고뇌하는 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성인세계를 저속한 물질만능주의와 속물 근성이 만연한 혼탁한 사회라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나치리만큼 강렬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독특한 정신적 불안정 증상을 지니고 있는 소년이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소외의 양상은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 고독감, 동생 앨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강박관념, 자아정체성의 갈등,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단절, 이로 인한 상호간의 불신감, 고립 등으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기에 그의 고민과 갈등은 사회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개인적 문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사회화의 문턱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녀, 학생과 교사의 대화단절로 인한 소외감과 외로움, 학교나 다른 환경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생기는 무력감은 자살충동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그의 여동생 피비이다. 여동생 피비를 통해 홀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 홀든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암시해 준다. 인간의 순수성과 참사랑이 상실되어 가는 황금만능주의의 현대 사회에서 자기중심주의 탈피야말로 자신과 사회를 아름답게 조화시켜 나가는 방법이며, 주변의 사물이나 미워했던 사람들 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애를 지닐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 소설의 결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흔히 소설의 결말은 신비함

이 설명되고 운명이 해결되는 전통소설의 “단힌 결말”과 콘라드(Conrad)가 헨리 제임스(Henry James)에 대해서 말한 바와 같이 즉, 만족스럽지만 결말이 없는 모더니스트(Modernist)들의 “열린 결말”로 구별된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스트(Post Modernist) 계열의 소설에서는 다수의 결말, 가짜 결말, 속이는 결말이나 패러디(Parody)를 발견하게 된다.<sup>35)</sup> 포스트모던적 소설로 평가되는 『호밀밭의 파수꾼』의 결말은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은 애매함을 지니고 있다. 여러 비평가들이 이 소설에 대해 애매한 결말이라고 하는 결론 부분에서 피비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홀튼은 신경쇠약 증세로 요양소에 입원한다. 이제 퇴원을 앞두고 지나온 삶의 여정을 담담한 마음으로 회상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홀튼에게서 그 어떤 확실한 모습도 발견할 수 없다. 그가 과거의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되찾아 학교로 돌아가고 나아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될지 확실한 비전은 제시되지 않는다. 미래의 학교생활 적응여부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홀튼은 긍정적인 각오는 밝히지만 확실한 대답을 유보한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एं터리”의 모습들에 대해 이제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순응할 자세를 보인다. 그래서 독자들은 홀튼의 밝은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토록 애매한 결론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모두에게 부합될 수 있는 결말일 것이다.

홀튼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이 없으며 주변 환경이나 반응에 쉽게 동요되며 사소한 문제에도 감정의 기복이 심해 쉽게 절망감, 허무감에 빠지는 미성숙한 젊은이의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합리적 판단의 결여, 현실감 부족은 인간과 사회

---

35) David Lodge, “Postmodern Fiction,” in *The Modes of Modern Writing* (Wheeling: Edward Arnold, 1977). p. 226.

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자살충동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홀든은 여동생 피비의 헌신적인 사랑에 의해 자신을 상처 입힌 세상에 대해 화해의 메시지를 던진다. 떠나려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시 만나고자 하는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준다. 홀든의 방황하는 마음은 단지 그의 모습만이 아닐 것이다. 현대의 거대한 물질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의 보편적인 모습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Text:

Salinger, J. D. *The Catcher in the Rye with Essay in Criticism*.  
Ed Sang-Yong Park, Seoul: Shina-sa, 1979.

### II. References:

Alexander, Charlotte A. *J. D.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New York: Monarch Press, 196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Broom, Josh. *The World Since 1900*. New York: Longman, 1989.

Bureau of the Census(1994). *Vital Statistics for the United States*.  
114th Ed. Washington DC: U. 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1994.

Buyss W. H., "Behavior problems and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0  
(1997), 645-659.

Corbett, Edward. "Raise High the Barriers, Censors." *America* IV.  
(January 1961).

David, Lodge. "Postmodern Fiction," *The Modes of Modern  
Writing*. Wheeling: Edward Arnold, 1977.

Fowler, Albert, "Alien in the Rye." *Modern Age* I (Fall 1957)

- Firench, Warren. *J. D. Salinger*. Boston: G. K. Hall & Co., 1976.
- Fromm Erich, *TO Have or To Be?* New York: Harper & Row, 1976.
- Geismar, Maxwell. *American Moderns: From Rebellion to Conformity*. New York: Hill and Wang, 1958.
- Grumwald, Henry Anatole. Ed. *Salinger: A Critical and Personal Portrait*. New York: Giant Cardinal Edition, 1962.
- Gwynn, Frederik L. and Blotner. *The Fiction of J. D. Salinger*.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 1958.
- Hasson, Ihab. *Contemporary America Literature*. New York: Frederick Ungar, 1971.
- Harper, Haward M. Jr. *Desperate Faith*.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4..
- Harring R., "Depressive disorder in adolescence: Archives of Disease," *Childhood*, 72/3(1995)
- Hoffeman Daniel. Ed. *Harvard Guide to Contemporary American Literatur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Jacob, Robert G. "J. D.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Holden Caulfield's 'Goddam Autobiography.'" *Iowa English Yearbook* (Fall 1959).
- Jones, Ernest. "Case History of All of Us." In *Critical Essays on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Ed. Joel Salzberg. Boston: G. K. Hall & Co., 1990.
- Leitch, David. "The Salinger Myth." *Twentieth Century*, IXVIII. (November, 1960).
- Leaster D., "A subculture theory of teenage suicide," *Adolescence* 22(1987), 317~320.

- Luedrku, Luther S. "J. D. Salinger and Robert Burns: *The Catcher in the Rye*," MFS, 126 (1970).
- Muss, Rolf E. *Theories of Adolescence*. 송종두 역.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1.
- Norman Cameron.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김기석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1.
- Sand, R. G., & Dixon, S. I. "Adolescent Crisis and Suicidal Behavior,"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3(1986)
- Seeman, M. "Alienation and Engagement. In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Eds., A Campbell & P. Converse. New York: Russel Sage, 1972.
- Segal, J. M. *Agency and Alienation: A Theory of Human Presence*. Savage,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1991.
- Shaffer, D., "The epidemiology of teen suicide: An examination of risk factor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9(1988)
- Stevenson, David. "J. D. Salinger: The Mirror of Crisis." *Nation*, CLXXXIV (March 1957).
- Vernberg E. M.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experience with peers during early adolescence: Reciprocal, incidental, or unidirecti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1990).
- 강완숙. 『지각된 부와 모의 가치 부/모 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0).
- 김재은 등. 『일반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출판부, 1981.
- 민경환.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1993)
- 장병림. 『청년심리학』. 서울: 법문사, 1982.

- 정문길. 『소외론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1.
- 정원식 등. 『교육심리학』. 서울: 재동문화사, 1981.
- 진창오. 「인지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6)



<Abstract>

**Holden Caulfield's Mental Instability and Settlement  
in *The Catcher in the Rye***

Lee, Dong-soo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Jong-Min



*The Catcher in the Rye* is narrated by a young man named Holden Caulfield through the way of flashback. Holden is not specific about his location while he's telling the story, but he makes it clear that he is currently undergoing treatment in some sort of medical facility. The events he narrates take place in the few days between the end of the fall school term and Christmas, when Holden is sixteen years old. Pencey is Holden's fourth school; he has already failed out of three others. At Pencey, he has failed four out of five of his classes and has received notice that he is being expelled.

Throughout the novel, Holden seems to be excluded from and victimized by the world around him. Instead of acknowledging that adulthood scares and mystifies him, Holden invents a fantasy that adulthood is a world of superficiality and hypocrisy ("phoniness"), while childhood is a world of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December, 2003.

innocence, curiosity, and honesty. Holden's alienation is the source of what little stability he has in his life. Holden's alienation is the cause of most of his pain. He desperately needs human contact and love, but his protective wall of bitterness prevents him from looking for such interaction.

Holden's alienation is fundamentally caused by his inner disorder rather than external circumstances, meaning that his problem results from his mental instability. At last, he experiences human love through his contact with Phoebe. It is Phoebe who helps Holden accept the world as it is and tolerate the absurd world. At the end of the novel, he tells the reader that he is not going to tell the story of how he went home and got "sick," but he plans to go to a new school in the fall and is cautiously optimistic about his future. In other words, he is prepared to "meet," not to "catch," the world, including the phonies he has hated. In this sense, *The Catcher in the Rye* is a novel about a young character's growth into maturity. Holden is an unusual protagonist for a bildungsroman because his central goal is to resist the process of maturity itself.

